

# 정부 무관심 속 부족한 인프라… ‘수소차 시대’ 멀었다

## Q 르포

‘H 국회 수소충전소’ 가보니

‘짧은 충전시간’ 기대와 달라  
차량 몰리면 과부화로 시간 늘어  
수소경제 활성화 한다지만  
정부 R&D투자는 여전히 부족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긴 전기차에  
비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5분 정도의  
시간이면 충전할 수 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혁신성장  
핵심 과제로 내놓으면서 수소충전소 설  
립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수소전기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차에 비해 충  
전 시간이 짧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방문한 수소충전소의 모  
습은 예상과 달랐다. 지난 9월 11일 방  
문한 서울 여의도 국회에 자리잡은 ‘H 국  
회 수소충전소’는 충전을 기다리는  
대기 차량으로 훈잡한 모습이었다. 정  
부와 완성차 업체에서 수소차의 장점으  
로 강조하고 있는 짧은 충전 시간은 기  
대와 달랐다.

수소충전기의 경우 충전 대기 차량이



지난 9월 11일 방문한 서울 여의도 ‘H 국회 수소충전소’ 모습.

집중될 경우 수소저장탱크의 압력을 정  
상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된  
다. 국내는 서비스 초기 단계라 지속적  
인 개선을 통해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H 국회 수소충전소’ 운영  
한 달 뒤인 지난 10월 9일은 한적한 모습  
이었다.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립된  
하이넷(HyNet·수소에너지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소를 충전하게  
되면 수소압축기에 과부화가 발생해 충  
전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며 “내년부터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을 도  
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달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시스템 안전  
화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충전을 진행한 뒤 수소저장  
탱크의 압력을 복원하는 작업을 분리해  
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충전 시간을 단축했다”  
고 말했다.

이는 미래 수소경제 패권을 두고 경  
쟁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기술과 비교  
하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문제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혁신성장 핵심 과제로 선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수소전기차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여  
전히 빡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미  
래 수소경제 패권을 두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현실  
적으로 역부족이다.

현재 한국은 수소충전소 1개소를 구  
축하는데 3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현재 30억원이 들어가는 민간  
수소충전소 설립 비용에 15억을 지원하  
고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건설 보조금  
지원정책은 별도의 구분 없이 1개소당  
지원 급액은 동등하게 지급된다.

반면 일본은 수소충전기 1개소를 설  
치하는데 5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  
다. 현재 100개소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한 일본은 크게 총 7가지의 형태로  
나눠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충  
전설비용량, 공급방식 등에 따라 최소  
1억8000만엔(약 18억4000만원)에서 최  
대 2억9000만엔(약 29억6000만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건  
설을 보조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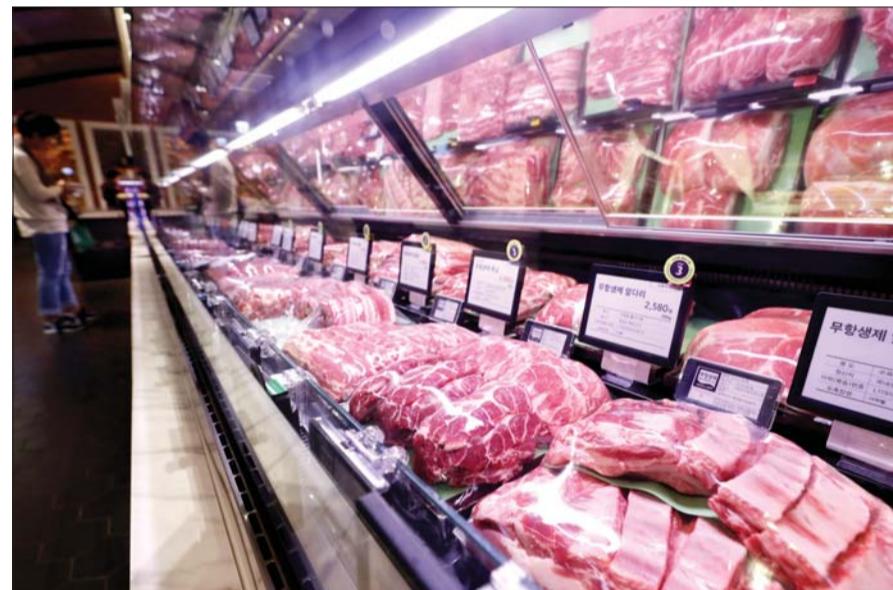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건설할  
경우 정부보조금에 더해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설치  
비의 4/5까지 보조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모두 복합형식  
으로 설계됐다. 또 고가의 장비가 필요  
한 개질방식 및 수전해방식 등 온사이  
트형의 경우 우선 복합형식으로 건설  
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건설하는 구조  
다. 초기 수소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선 온사이트형식과 오프사이트(Off-Site)  
방식이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  
설보조금이 묶여 지원되다 보니, 높은  
초기 투자비용 장벽을 민간사업자가 넘  
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이넷 관계자는 “수소차의 보급이  
증가해 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가 비용  
을 투자해 수소저장탱크를 볼록 형식으  
로 확장할 방침이다”며 “(수소저장탱크  
를 늘리면) 압력을 정상상태로 복원하  
는 시간이 단축돼 안정적으로 충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서울의 수소차 구매자들은 부족한 충전  
인프라로 인한 불편을 떠안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돼지고깃값 사흘 연속 하락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일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는 100g당 1930원으로 전날보다 75원 내리면서 사흘 연속 하락했다. 국산 냉장 삼겹살 평균 소매가가 1000원대로 하락한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발병하기 전이었던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식품 매장의 육류코너 모습.

/연합뉴스

## 다국적기업 관세포탈, 5년 간 9500억원

### 전체 기업 추징액 46%

다국적 기업 관세포탈액이 최근 5년  
간 9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  
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세조사로 추징한 다국  
적 기업 세금은 총 9500억원이다. 포탈  
기업은 총 672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를 받은 후 세금  
을 낸 기업은 총 1772곳으로,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다. 관세포탈 전체 기업  
중 38%가 다국적 기업인 셈이다. 추징  
액도 전체 중 46%에 해당한다. 국내 기  
업보다 다국적 기업 탈세 규모가 크다  
는 증거다.

일례로 다국적 기업 A사는 최근 맥  
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

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 원기를 인위적  
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  
았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  
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한 이전가  
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국적 기업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 ▲  
2018년 19% 수준이다. 50%대를 유지  
하다가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  
용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 대형마트 확장세 둔화… 온라인쇼핑 영향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사 5년간 지점 수 증가율 정체 상태

3대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  
러스)의 확장세가 최근 5년간 크게 둔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  
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대규모 유통업  
체 개·폐점 현황’을 보면 지난 2014~  
2018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의  
지점 수 증가율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홈플러스의 경우 2014년 140곳  
이었던 지점은 2015~2017년 142곳으로

조금 늘었다가 지난해 다시 140곳을 기  
록했다. 이마트는 2014년 143곳이었던  
지점이 지난해 147곳 증가했다. 2.8%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114곳에서 124곳으로 지점을  
8.8% 늘렸다.

앞서 대형마트는 2009~2013년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 롯데마트는 69곳에서  
109곳으로 58%, 홈플러스의 경우 113곳  
에서 139곳으로 23%, 이마트 126곳에서  
143곳으로 크게 확장한 바 있다.

대형마트의 증가세 둔화는 인터넷 쇼  
핑의 활성화 등으로 소비 형태가 변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1면 ‘라임운용 해법찾기…’서 계속

## 라임운용 자산 2조 ↓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2012년 12월 191억원에서 2018년 말 3  
조7391억원으로 6년 만에 약 200배로  
불어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올  
상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며 7월 말  
6조41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7월 이  
후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잇단 잡음이  
시작되며 이달 10일 기준 4조8071억원  
으로 두 달 새 2조원 가량 줄어들었다.

한편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  
자계는 지난 7월부터 투자자에게 적  
극적인 환매를 고려토록 안내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